

광역철도 9천799억원, 일반철도 4천4억원 투자

경기도, 철도망 확충에 1조 3천803억원 투자한다

경기도는 7일 2008년도에 경기도 지방비 1천377억원과 국비 8천852억원, 민자·기타 3천914억원 등 총 1조 3천803억원을 투자해 경기도내 총 19개 노선 684km의 철도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총사업비의 25%를 부담하는 광역철도는 7개 노선 189.9km 건설에 총사업비는 8조6천46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7년까지 3조3천279억원을 투자하여 경원선(의정부~소요산)은 2007년에 준공되었으며, 중앙선(청량리~덕소)은 2005년 우선 개통시켜 운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공사중인 광역철도 6개 노선에 경기도 지방비 1천377억원, 국비 4천663억원, 민자 및 기타 3천914억원으로 총 9천614억원이 투자되며, 노선별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다.

경의선 용산~문산간 48.6km에 총 사업비 1조9천668억원이 소요되는데 2007년까지 9천922억원을 투자하여 52%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8년도에 경기도 지방비 40억원, 국비 281억원 등 총 375억원이 투자된다.



경기도는 7일 2008년도에 경기도 지방비 1천377억원과 국비 8천852억원, 민자·기타 3천914억원 등 총 1조 3천803억원을 투자해 경기도내 총 19개 노선 684km의 철도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천458억원이 투자된다.

중앙선 청량리~덕소간 18km에 총 사업비는 7천491억원이 소요되는데 2007년까지 6천539억원을 투자하여 88%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8년도에 경기도 지방비 40억원, 국비 281억원 등 총 375억원이 투자된다.

분당선 연장 오리~수원간 19.5km에 총 사업비 1조5천602억원이 소요되는데 2007년까지 3천342억원을 투자하여 1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도에 경기도 지방비 302억원, 국비는 1천억원 등 총 1천302억원이 투자된다.

수인선 수원~인천간 43.9km에 총 사업비 1조2천704억원이 소요되는데 2007년까지 1천206억원을 투자하여 8%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8년도에 경기도 지방비 92억원, 국비 527억원 등 총 754억원이 투자된다.

경춘선 망우~금곡간 16.9km에 총 사업비 6천349억원이 소요되는데 2007년까지 1천771억원을 투자하여 20%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8년도에 경기도 지방비 189억원, 국비 755억원 등 총 990억원이 투자된다.

신분당선 강남~정자간 18.5km에

총 사업비 1조5천808억원이 소요되는데 2007년까지 3천359억원을 투자하여 20%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8년도에 경기도 지방비 37억원, 국비 200억원, 민간자본 및 기타 3천497억원 등 총 3천735억원이 투자된다.

또한 신분당선 연장(정자~수원), 신안산선(청량리~안산), 대곡~소사, 별내선(안산~별내)의 4개 계획 및 검토사업에 대하여는 조사·설계비 등의 국비예산 185억원을 확보하였다.

전역 국비로 추진하는 일반철도는 현재 4개노선 214km가 공사중이며 4개 노선은 조사·설계 중으로 이에 소요되는 2008년도 예산 4천4억원이 확정되었으며, 노선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중앙선은 덕소~원주간 90.4km가 공사중으로 2007년까지 공정은 55% 정도로서 덕소~팔당 구간은 우선 개통시켜 운행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국비 1천960억원이 투자된다. 경춘선은 금곡~춘천간 64.2km가 공사중으로 2007년까지 공정은 55% 정도로서 2008년도에 국비 1천380억원이 투자된다.

여주선은 성남~여주간 53.8km가 2007년 공사 착공되었으며 2008년도에 국비 587억원이 투자된다. 경원선은 신탄리~철원간 5.6km가 2007년 12월 공사 착공되었으며 2008년도에 국비 30억원이 투자된다.

또한 소사~원시, 여주~문경, 포승~평택, 홍천~용문간 4개 계획사업에 대하여는 조사·설계비 등의 소요사업비 47억원이 확정되어 투자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일용직 근로자들, 안전교육 강화 필요”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천 냉동창고 화재현장 방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8일 낮 12시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코리아2000 화재현장을 찾아 냉동창고 내부를 살피고, 수색작업 중인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최진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정확한 사고경위를 다시 보고 받고, 혹시 모를 생존자 수색작업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직업안전교육 실시 및 의무를 강화해 추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참혹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강화에 힘써야 한다”며 “달일 아침에 일용직 근로자들을 뽑아 안전교육도 없이 바로 작업을 시키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이 부분을 고쳐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소방부분에 있어 국가가 거의 손을 놓고 있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8일 낮 12시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코리아2000 화재현장을 찾아 냉동창고 내부를 살피고, 수색작업 중인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을 격려했다.

다”며 “중앙정부에 소방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참사 이틀째를 맞은 대책 본부는 이날 오전 냉동창고에 소방대원 120명과 구조견을 투

입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책본부는 희생자들의 소지품과 옷, 신발 등을 수거해 신원 파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호원IC영구개설 · 통행료 인하 요구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를 사랑하는 시민 200여명



의정부시의회 의원 및 의정부를 사랑하는 시민 200여명은 지난해 12월28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식이 열린 호원동 사파타널 입구에서 호원IC 영구개설 및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및 의정부를 사랑하는 시민 200여명은 지난해 12월28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식이 열린 호원동 사파타널 입구에서 호원IC 영구개설 및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의회는 현재 동부순환도로 등 교통정체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호원IC 영구개설과 사파타널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비용으로 비싸진 통행료 인하를 강력하게 요

구했다. 특히 호원IC 영구개설은 향후 동서간 차량흐름의 분산, 교통정책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반드시 개설되어야 하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비용과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유로 2배 이상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어 인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토뉴스

현충탑 헌화 분향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팔달구의 현충탑을 찾아 헌화 건부공무원들이 1일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이해 수원시 분향을 하고 있다.

경기도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추진

배출자 부담 30%에서 48.8%로 단계적 인상

경기도는 쓰레기종량제 현실화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을 추진한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종량제 봉투를 구입·사용해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그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종량제 봉투가격에 처리수수료 전부를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처리수수료 중 배출자가 종량제 봉투구입을 통해 부담할 비율을 시·군별로 설정하여 반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경기도는 필요비용의 30%정도를 배출자가 부담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유사 공공요금 인상율을 살펴보면 하수도요금(119.4%), 상수도요금(100.3%),

종량제봉투가격(73.8%)으로 쓰레기 봉투가격이 유사 공공요금에 비해 현실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주민 여론 등을 의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비용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제도의 분질인 원전자부담원칙 확립을 위하여 2008년 배출자격에 처리수수료 전부를 반영하고 각 시·군별로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쓰레기 봉투가격은 2010년 기준에서 현재 도내 평균 470원에서 590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며, 도시 형태별로는 일반시 평균 610원, 도농복합시 평균 580원, 군지역 평균 51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어려운 이웃돕기에 앞장서

우리은행 회동역지점 직원들

의정부시 호원2동에 소재한 우리은행 회동역지점 직원들이 지난해 12월27일 호원2동 주민센터를 방문,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쌀과 라면 등을 기증했다.

지난해 12월17일 회동역사거리 상가 2층에 개점 한 우리은행 회동역지점은 은행 거래처 및 지인들에게 축하 화환대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쌀과 라면으로 축하를 해 달라는 뜻을 전하여 30여명으로부터 쌀과 10kg 43포, 라면 22상자를 받아 동에 기증하게 되었다.

전창환 지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 간의 정을 베풀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에서 쌀과 라면을 모아 기증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 2008년 시무식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일 도청제1회의실에서 열린 2008년 도 시무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경기도민회 신년하례회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월 4일 서울 외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민회 신년하례회에서 참석자들과 축하떡 절단을 하고 있다.

사랑나눔 헌혈증서 신천종합병원에 기증

의정부시 녹양동사무소 헌혈증서 100매 전달

의정부시 녹양동은 지난해 12월 26일 1년 동안 36.5'사랑나눔 헌혈증서은행을 통해 기증 받은 헌혈증서 100매를 지역 소재한 신천종합병원을 찾아가 전달해 주어 감사기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혈액 공급이 필요함에 따라 이번에 전달된 이웃의 헌혈증서를 통하여 사랑 나누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로부터 기증 받은 헌혈증서는 18명으로부터 100매를 기증 받았다. 이중 100매를 이날 녹양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소재한 신천종합병원에 전달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혈액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혈액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여 전달하게 되었다.

100매의 헌혈증서는 약 40,000l에 해당되는 혈액으로 긴급혈액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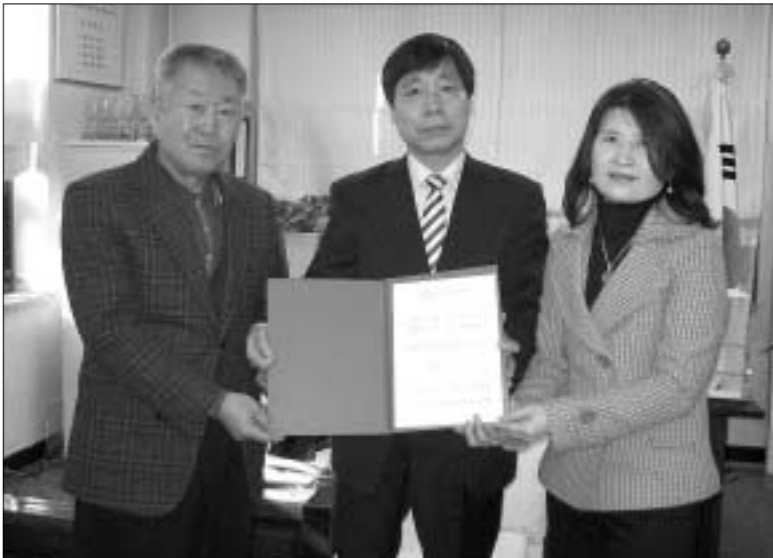
헌혈증서를 전달받은 신천종합병원 한미화 임무차장은 요즘 같이

혈액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때 녹양동에서 전달해 준 헌혈증서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겠다고 기뻐했다.

이병우 녹양동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웃간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나눔 릴레이

행사의 일환으로 헌혈증서 기증 행사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헌혈증서 기증운동을 확대해 주민들간의 유대감 강화와 헌혈에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시 녹양동은 지난해 12월26일 1년 동안 36.5'사랑나눔 헌혈증서은행을 통해 기증 받은 헌혈증서 100매를 지역에 소재한 신천종합병원을 찾아가 전달해 주어 감사기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경기도 1시군 1경찰서 설치 마무리 단계

김문수 도지사 경찰서 유치 의지 가시적 성과

경기도는 날로 증가하는 치안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경기도내 경찰서가 설치되지 않은 화성시·하남시·동두천시·의왕시 등 4개 시에 경찰서 신설을 추진하여 화성시·하남시·동두천시 등 3개시에 경찰서 신설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지난해 초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연쇄적인 부녀자 실종사건과 그 동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를 신속하게 대처하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김문수 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지난해 1월 경찰서가 설치되지 않은 이들 4개 시군에 경찰서 신설을 추진키로 방침을 세웠다.

1월과 7월에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경찰청을 방문하여 지회보고 형태로 건의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 경찰서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화성시, 하남시, 동두천시에 경찰서 신설이 확정됐다.

특히, 경찰서가 없는 이들 4개 지역은 인근 시군의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관계로 항상 치안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가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대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화성의 경우 최근 3년간 43만6천 800여건의 범죄와 교통사고가 발생

하고 연평균 14만5천600여건의 높은 범죄와 사고 발생율을 보이고 있으며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역이기도하다.

또한 하남시, 동두천시, 의왕시의 경우도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집중이 가속화 되는 등 치안행정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는 현재 의왕시를 제외한 30개 전체 시군에 경찰서가 설치되는 만큼 앞으로 도민에 대한 치안행정 서비스가 한층 민속스러울 정도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서 신설이 확정되지 않은 의왕시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대통령 인선위원회에 신설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청각장애아동 소리 찾아준다’

경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경기도는 올해 도내 만5세 미만 저소득가정의 청각장애아동 30명에게 인공달팽이관(외우)수술과 언어재활치료를 지원한다.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진동이 귀를 통해 들어와 뇌에서 음(sound)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인데 잔잔한 호수에 돌을 떨어뜨렸을 때 생기는 물결과 같다.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되어 있는데 내이에 있는 달팽이관의 청각세포가 손상되면 소리를 전달할 수

없게 되므로,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을 통하여 청각기능을 다시 살리고 재활치료를 받게 되면 청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2002년부터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145명의 청각장애아동에게 세상의 소리를 찾아주었다.

인공달팽이관수술 후 소리를 듣고 말하기까지는 성공적인 수술을 위한 의료진의 정성어린 기술과 청

각장애아동과 보호자의 꾸준한 재활치료 노력 등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기도는 올해에도 청각장애아동 30명을 선정하여 수술비와 언어재활치료비를 1인당 연간 600만원씩 지원하고 수술 다음 해부터 3년 동안은 거주지 시·군에서 연간 300만원씩 언어재활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원하는 청각장애아동의 보호자 및 장애인 생활시설장은 인공달팽이관수술이 가능한 시술 및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수술 가능여부를 확인 받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